원희룡 장관,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면담

- 건설·항공·인플레이션 저감법(IRA)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논의 -

□ **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**은 9월 7일 국토발전전시관(서울 정동)에서 **필립 S. 골드버그(Philip Seth Goldberg) 주한 미국 대사를 면담**하고 한-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○ 이날 면담은 지난 7월 29일 부임한 신임 골드버그 미국 대사의 취임을 축하하고 교통, 인프라 분야의 한-미 간 현안 사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골드버그 대사는 "**펜데믹 상황으로 위축된 한-미 항공노선 정상화**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**국토교통부에 감사**하다"는 인사를 건네며,

○ 국토부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**미 대사관 직원 숙소 이전 사업이 적기에 착공**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.

○ 또한, **낙후된 미국 내 도로, 공항 인프라** 등에 대한 **한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**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.

□ 이에 원 장관은 "국토교통부는 **도심항공교통(UAM)을 한국의 미래 산업으로 육성 중**이며, 양국간 기술,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도심항공교통 사업이 **조속히 증진되기를 희망**"한다면서,

○ **건설협력**과 관련해서는 "**미국 기업은 주로 설계, 사업개발, 금융 부문에 강점**을 가지고 있으며, **우리 기업은 시공분야에서 우수**하다고 평가를 받는바, **미국 또는 제3국**에서 **양국 기업이 협업하면 더욱 좋은 성과**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"한다고 화답하였다.

○ 아울러, 미 대사관 직원 숙소 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"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기 착공을 위해 노력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□ 원 장관은 "미국의 **인플레이션 감축법안(IRA)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의도를 잘 이해**하고 있지만,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미국에 진출한 **한국 기업들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**"하였으며,

○ 골드버그 대사는 "이미 외교부, 산업부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우려사항을 전달 받았으며, **본국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**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, **원 장관님의 말씀도 본국에 잘 전달**하겠다" 라고 답변하였다.

□ **원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** 이번 면담을 통해 한-미 동맹관계의 틀에서 건설 및 교통 분야에 대한 **양국간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증진하기로** 하였다.

2022. 9. 7.

국토교통부 대변인